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Summer 2011

Contents

- UNEP FI 동향
- Asia Pacific 지속가능금융
- UNEP FI KG Activities
- New Publications
- Register Now



UNEP FI Global Roundtable 10월 개최 준비에 박차

격년으로 개최되는 UNEP FI Global Roundtable에 금융업계 리더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행사 준비가 가속화 되고 있다. UNEP FI 의장 Paul Clements-Hunt는 "세계 지속가능 금융 시장의 전문가들이 Global Roundtable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시장 기준으로서의 명성 또한 높아졌다."며 10월 행사 개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50여명의 연설자 가운데 참여 확정된 중요한 사들로는 Nature Conservancy 대표 Mark Tercek, 중국상업은행장 Weihua Ma,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최고 투자책임자 Rick Lacaille 등 지속가능 금융의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다.

Roundtable은 전세계 환경, 에너지 및 금융 분야의 CEO, 지속가능성 리스크, 은행, 보험, 투자 전문가 등 600여명의 참가자들로 구성될 것이며 10월 19-20일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그 밖의 확정 참가자로는 영국 전 총리 Gordon Brown, The Black Swan의 저자 Nassim Taleb, Research In Motion의 CEO, James Balsillie가 있다.



[상세내용 참조](#)

남미 & 카리브해 지역, UNEP FI 지속가능 보험 협의 원칙 회의

남미 & 카리브해 지역의 금융계 리더들과 주주들이 모여 지속가능 보험 아젠다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HSBC의 주최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UNEP FI 지속가능 보험 이니셔티브 원칙 회의는 2011년 5월 16일, 17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UNEP FI 지속가능 보험 이니셔티브는 모든 보험 산업 종사자들이 지속가능성이라는 틀 안에서 보험 비즈니스 분야에 지속가능성을 전파 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브라질 HSBC 보험 CEO이자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UNEP FI 보험 위원회원 Fernando Moreiras는 말했다. 그 밖의 참가자로는 브라질 민영보험 감독 관리자 Paulo dos Santos, 브라질 보험 협회 대표 Jorge Hilario, Inter American 보험사 연맹 사무총장 Recaredo Arias, 카리브해 지역 보험 협회장 Douglas Camacho 등이 있다. 최종 원칙은 2012년 6월 브라질 Rio de Janeiro에서 열릴 지속가능 개발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남미 은행 협회, 효과적 지속가능성 실천을 위해 UNEP FI와 파트너십 체결

남미 최대 은행 협회인 FELABAN은 지난 6월 UNEP FI와 남미 지역의 지속가능 금융 실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는 최초의 지역 은행 협회와 국제 기구 간의 협력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파트너십을 통해 남미 지역의 은행들이 환경과 금융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미래의 리스크와 기회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012년 개최될 지속가능 발전 컨퍼런스를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 UNEP FI 대표 Paul Clements-Hunt는 말했다. FELABAN은 중미와 남미 지역 19개국 소재의 은행 500여 곳을 대표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UNEP FI, Bonn 기후 회담 에서 , 공공-민간 교량 역할

지난 6월 독일 Bonn에서 개최된 정부와 민간의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 축소 및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한 UNEP FI 기후 협상 회의에서, 민간 금융 부문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본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있어서 자산의 움직임 및 민간 금융의 역할,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보험 솔루션을 통한 기후 회복력 도모 방법 등 공공-민간 모두가 동감 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선진국, 개발 도상국 정부 협상가들과 UNEP FI의 투자, 금융, 보험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계획 및 정부와 민간 역할에 대하여 토론 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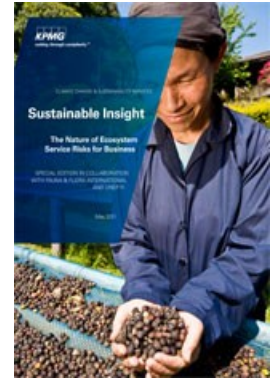
[상세내용 참조](#)



Sustainable Insight: The nature of ecosystem service risks for businesses

보고서 지적, 기업들 생물다양성 저하 비용에 대한 인식 아직 부족

UNEP FI, KPMG, Fauna & Flora International에 따르면 환경 이슈에 민감한 분야의 기업들이 생태계 변화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Sustainable Insight 특별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이 분명히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금융, 채광 산업처럼 환경에 민감한 비즈니스들이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해 아직 까지도 낮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Sustainable Insight: The nature of ecosystem service risks for businesses(지속가능통찰:생태계 서비스 비즈니스 리스크의 본질)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저하에 대처할 준비가 되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문제 반영 정도를 연구한다.



[상세내용 참조](#)

UNEP FI, 호주와 에콰도르에서 교육 세션 개최

세계 금융 기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UNEP FI의 노력이 지난 6월 호주와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교육세션을 통해 이루어 졌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환경과 사회 리스크 관련 교육 세션이 개최되어 50여명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는, 환경과 사회 리스크 관련 입문 교육 세션이 개최되어 23개의 은행기관들이 참가했다. 본 교육은 실현 가능한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법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한 훈련 등 다양하고 심층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자들이 환경과 사회적 이슈들이 비즈니스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9월 7~9일, 지속가능성 선두주자들, 나이지리아에서 첫 번째 모임

9월 7일 부터 3일간 UNEP FI, Access Bank Plc, FMO가 나이지리아 지속가능 금융 위크에 열린 상급 회의에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금융인들을 초대했다. 국제 개발금융기관들의 주최로 "Moving Frontiers - Sustainable Finance" (한계를 움직이다 -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테마 아래 개최된 컨퍼런스는 참가자들이 금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 기회, 아이디어 등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물, 그리고 생물 다양성 리스크 주제 워크숍, 10월 2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

UNEP FI, Alliance for Global Water Adaptation(AGWA), 세계은행, 세계보존협회 등 여러 파트너 기관들은 2011 UNEP FI 2011 Global Roundtable에 바로 연이어서 10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각각 반일 일정으로 트레이닝 워크숍을 개최한다. 자산관리사, 리스크 매니저, ESG 전문가 등 금융 및 투자분야 전문가들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첫 번째 워크숍 "Mastering Water Risks for Banks and Investors in a Changing Climate"는 기후 변화속 은행과 투자자들이 대면해야 할 물 관련 리스크 극복하기 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어, 은행과 투자자들이 물 관련 리스크들 뿐만 아니라 물 이슈에 민감한 부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릴 "Banking for Biodiversity"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금융"이라는 주제 아래 참가자들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사례 연구와 소규모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될 계획이다.

[상세내용 참조](#)



UNEP FI 트위터 계정 개설

Follow us on 

이제 트위터에서도 UNEP FI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 출판 관련 뉴스 및 멤버들의 활동 업데이트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UNEP FI 트위터 피드는 http://twitter.com/#!/UNEP_FI 혹은 @UNEP_FI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UNEP FI, 중국 내몽고에서 지속가능 뱅킹 촉진

UNEP FI가 중국인민은행 Hohhot(후허하오터)지점, 내몽고 자치 지역 인민 정부, GIZ와 함께 6월 중순 중국 내몽고에서 녹색 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 상업은행, 중앙은행, 은행규제 기관, 환경 기구 출신을 포함한 8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적인 지속가능 금융 트렌드와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 그리고 채굴 산업의 환경 및 사회 리스크 등에 대한 요약보고를 받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Hebei(허베이성) 출신 환경 보호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경험 공유 세션을 통해 지역 은행 기관들이 신용제도를 도입한 사례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 하였다. 9월부터 환경과 사회 리스크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

[상세내용 참조](#)

9월 13일, 더반 REDD관련 산림 탄소시장 Webina 개최

UNEP FI가 산림 탄소시장 정책 보고서 출시를 기념하여 여러 금융 및 정부계 인사들과 함께 온라인 Webina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릴 세계기후변화 협상을 몇 달 앞두고 "REDDy-Set-Grow: Part II-세계기후변화협상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 하에 열린 본 웨비나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사유자산 동원을 촉진시킬 세계 산림 동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UNFCCC(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에서 진행중인 REDD+ (개발도상국의 산림 감소·파괴방지 및 산림축적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체제)에 주목한다. 연설자로는 인도네시아 REDD 대책본부 사무총장 Heru Prasetyo, 글로벌 카노피 프로그램의 창시자 Andrew Mitchell, Merrill Lynch 탄소시장 글로벌 총괄책임자 Abyd Karmali 등이 있었다.



[상세내용 참조](#)

아시아 지속가능 투자 협의, 제10회 연례 컨퍼런스 개최



2011년 9월 28, 29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 10회 아시아 지속가능 투자 협의회가 개최된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 금융을 비롯한 가치사슬 전반에 연관된 정책입안자, 자산소유자, 펀드 매니저, 자문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며 아시아의 향후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 투자 전문가들이 그간의 발전과 앞으로의 핵심 도전들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

日 태양열·풍력 발전 집중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태양열 및 풍력 발전에 집중한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Tohoku(도호쿠)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으로 태양열 에너지발전과 풍력발전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중국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발전 계획 9월에 출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빠르면 9월에 발표 한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기업들의 세수 감면, 특허 경영권, 산업 집적도 업그레이드 등이 이번 계획의 최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계획은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자원 종합 이용 등 3개 분류로 나눠 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며 고효율 에너지 및 환경 보호 제품, 서비스, 사업 등의 6대 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폭이 가장 큰 산업 정책으로써, 산업, 금융, 세수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 지침 및 발전 목표도 제출했다.

[상세내용 참조](#)



대만 101빌딩 LEED 인증, 녹색건물로 세계 정상에 다시 우뚝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이페이 소재 101 빌딩이 미국 녹색 건축 위원회 (USGBC)로부터 녹색 건물 인증 제도 (LEED)의 인증 실버·골드·플래티넘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 (69점 만점 중 52점 이상)을 획득함.
- 101빌딩은 빌딩 자동화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통해 전기 소비량, 물 소비량, 쓰레기 배출량을 약 10%씩 감소시켰으며 실내공기의 질 또한 LEED 최고 기준에 도달함. 또한 일반 건축물보다 30% 높은 에너지 사용 효율로 매년 약 70만 달러의 비용 절약 가능.
- 101빌딩의 LEED 플래티넘 인증 획득 소식은 다수의 해외 매체에 보도되어 커다란 홍보효과를 누림.

[상세내용 참조](#)

中, 에너지 기업들 녹색산업에 앞장서



산시성(陝西省) 소재의 대기업들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경제촉진을 시도한다.

에너지중화학공업 위주로 발전해온 산시성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녹색산업'을 통해 난관을 극복 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12차 5개년 경제개발 기간 동안 산시성 '가오링징웨이 공업단지'에 110kV규모의 스마트 변전소를 시범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 개발 구상 중이다.

[상세내용 참조](#)

중국 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희망인 셰일가스

셰일가스는 혈암층에 함유된 천연 메탄가스로, 중국의 셰일가스 자원은 매우 풍부하며 셰일가스 채굴을 위한 기술 기반과 상용화 조건도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정부 정책이 구체화 될 경우, 중국의 셰일가스는 빠른 시일 내 양산을 실현하여 신 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채굴 기술 및 설비에서도 일정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 협력과 독자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세계적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셰일가스의 잠재력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상세내용 참조](#)



수출입은행, 대형 신재생 프로젝트 활성화

- 신재생 에너지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글로벌 콘퍼런스 (Korea Eximbank Global Conference 2011)' 개최.
- 최근 이슈로 떠오른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녹색 산업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금융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
-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를 비롯하여, 주요국 수출 신용기관, HSBC-BNP Paribas 등 세계 유수의 선진 금융기관들, Allen & Overly-Clifford Chance 등 국제적 법률회사, 국내 주요 플랜트업체 관계자들 참석.

KB국민카드, '그린(Green)카드' 출시 및 1호 카드 전달



-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시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며 전국 공공시설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 그린(Green)카드'를 18일 출시.
- 종로구 서린동 KB국민은행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 성장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제1호 'KB국민 그린(Green)카드' 수령.
- 전국 32개 국립공원 직영야영장 50% 할인, 산림청 산하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세종문화회관 자체예술단공연 20% 할인 등 11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153개 시설물 이용 시 무료 입장 및 할인 서비스 .
- 그린카드 제공 혜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홈페이지 (www.greencard.or.kr)에서 확인.

'저탄소 녹색통장·그린 슬라 론' 등 특화상품 두각



- 2008년 8월22일 '제5회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녹색금융'에 본격적으로 참여.
- 사랑 에너지 복합예금, 그린 슬라론, LED론, 저탄소 녹색통장 등 다양한 녹색 상품들로 2008년 한국 소비자 웰빙 지수 은행 부문에서 1위를 차지.
- 아울러 나무 심기를 통해 서울 남산을 보호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녹색 경영도 추진 중.



신한은행, '신(新)녹색기업대출' 출시

-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녹색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해 대폭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신(新) 녹색기업대출'을 8월 8일(월)부터 출시.
- 대출대상은 녹색산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녹색산업에 필요한 품목을 생산/서비스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혹은 현재 녹색산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녹색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녹색 인큐베이팅 성격의 시설.
-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011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전문대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신한금융지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e-사회책임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사회책임경영 역량을 한층 더 높여가고 있음.



하나銀, 사랑의 재생PC 나눔 기증식 가저

- 재생 PC를 다문화 가정 및 국내외 사회 소외계층에 공급 하고 하나은행 본점에서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와 '사랑의 재생 PC 나눔' 기증식 가짐,
- 재생 가능한 PC 본체 3336 대와 모니터 544 대를 한국 노동복지센터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기증하고, 이들 단체를 통하여 재생 PC를 국내 취약계층 및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가에 무상으로 전달.
- 재생 PC 본체중 200대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PT Hanabank)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취약계층에도 지원할 예정.



대구은행, '그린카드 대구 1호' 대구시장에게 전달

-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대구은행 그린카드 1호' 전달.
- 7월 22일부터 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 시작.

삼성화재, 에너지보험 전문가 영입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15일 에너지보험 부문 전문가인 Alfred Fackler(알프레드 팩클러, 60세)를 기업 영업 총괄 상근고문으로 영입.



하이카 에코 자동차보험, 서경참보험인 대상 상품개발·마케팅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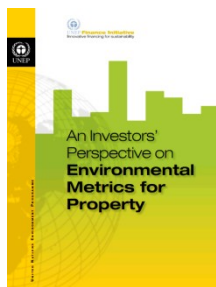
- Hicar Eco 상품은 자동차 사고 뒤 부품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를 주목.

H 현대해상

- 예컨대 중고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신제품 가격과의 차액을 고객과 정비업체에 돌려주도록 한 것.
- 고객에게는 부가적 혜택으로 안심과 만족을 제공,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의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고부품 전용 콜센터 운영, 전국 48시간 이내 부품공급, AS방안 등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쇄물은 이메일로 교체.

New Publications

An investors' perspective on environmental metrics for property



- 부동산 환경 관련 통계 제공자 및 이용자들은 환경 활동과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성공적인 평가를 위해 서로간의 차이를 축소시켜야 함.
- 부동산 투자는 심각한 환경적, 사회 및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조달러 가치의 세계적인 산업 분야임.
- 부동산의 개발, 수리, 관리 결정에 있어서 도시의 가난, 지구 온난화, 원주민의 권리 등의 요소가 반영됨.
-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은 동시에 막중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곳.
- 영국 에너지 보존 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건축 및 파괴 등의 활동이 전체 이산화탄소량의 50%를 배출.
- 건축물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려면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상세내용 참조](#)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Online Course 기후변화: 금융부문의 위기와 기회 온라인 교육 과정



UNEP FI(유엔 환경기구 금융 이니셔티브)가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 (기후변화: 금융부문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본 온라인 교육 과정은 2007년 6월에 처음 개설된 후 매년 성공적으로 재개설 되어진 바 있다. UNEP FI 소속 기후변화 워킹그룹이 진행할 본 과정은 그 동안 금융 기관들의 보여온 기후변화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질 높은 트레이닝을 제공할 계획이다.

- 기간 : 2011년 11월 7일 ~ 28일
- 제공 언어 : 영어
- 대상 : 선진국, 개발국 출신 금융기관, 은행, 투자기관, 재보험사, 펀드사의 경영진 및 중간 관리자. 기후변화와 금융 이슈에 관심 있는 정부관계자 및 일반인.
- 수료증 발급

[상세내용 참조](#)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25 Fax: (+82 2) 3153-7749
www.ecofrontier.com

